

 스위스 제네바

WTO 에서 보낸 6개월

- 다자무역체제의 현장에서 성장한 기록 -



GENEV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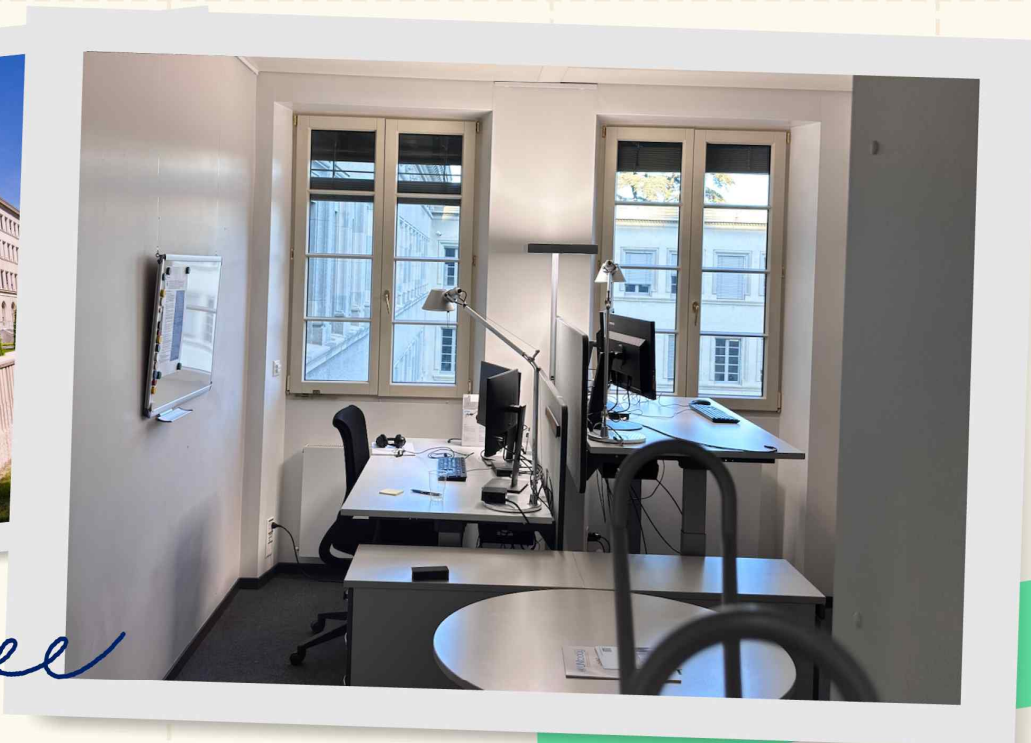
이다은(WTO HR 부서 인턴)

책 속의 WTO에서 현실의 WTO로

저는 세계무역기구(WTO) 제네바 본부 인사부(Human Resources)에서
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.

글로벌 인재들을 발굴·지원하는 인사 행정 업무를 보조하며,
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.

국제통상 분야를 공부하며 글로만 접했던
WTO를 직접 경험한 것은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.
다자간 무역 체제의 핵심 기관이 어떻게 기능하는지,
또 다국적·다문화 배경의 동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
현장에서 배우며 통상 전문가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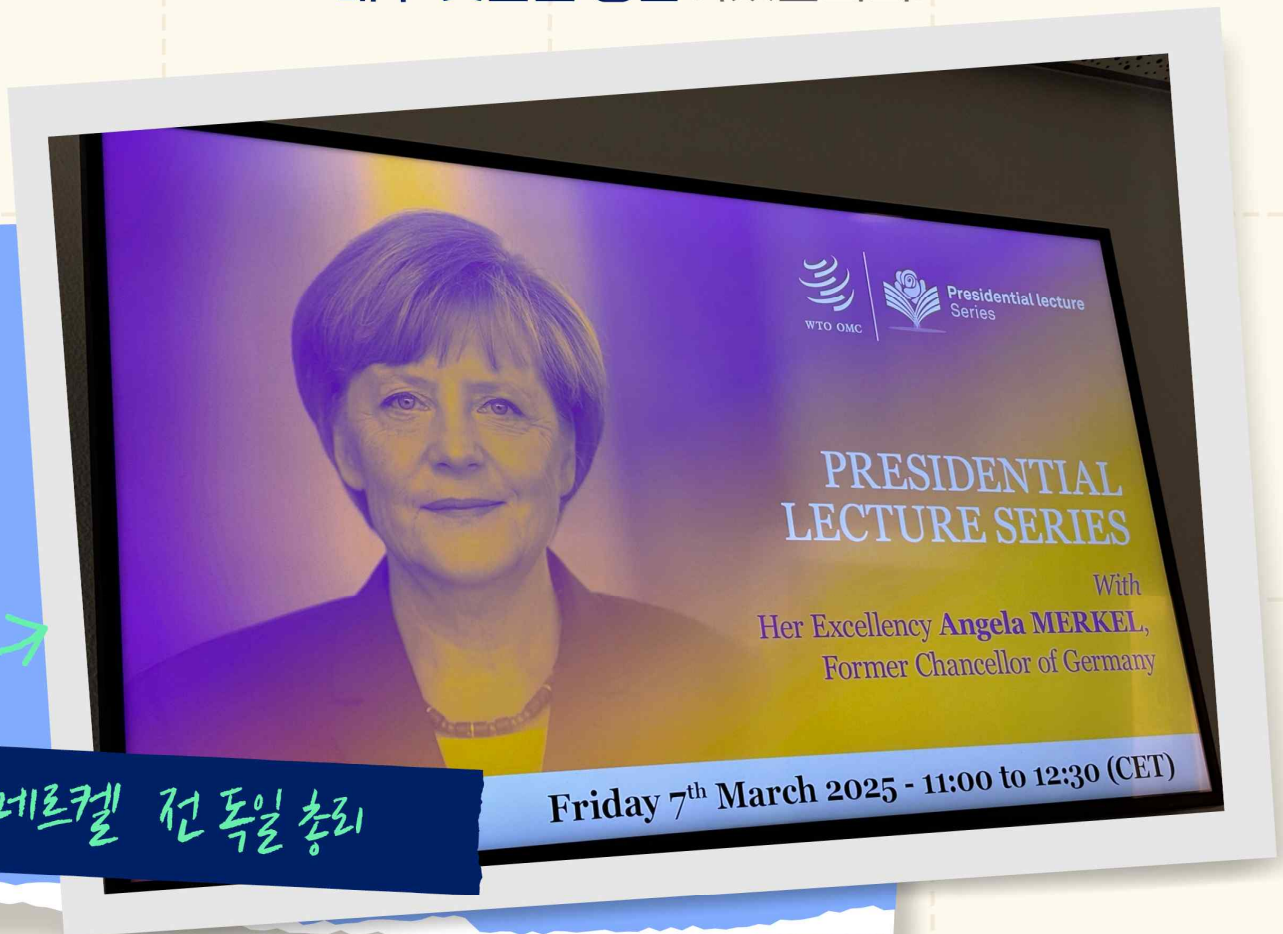
WTO 사무실

←

다양한 경험 속에서 뿌아간 성장

WTO 인턴십의 큰 매력 중 하나는
다양한 국제회의에 참관(Observer)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.
다자통상기구의 최전선에서 글로벌 의제들이 논의되는 과정을
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.

특히 재직 당시 임직원 특강으로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강연이 열렸는데,
세계적인 지도자의 통찰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은
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.



메르켈 전 독일 총리

Friday 7th March 2025 - 11:00 to 12:30 (CET)

함께 성장한 인턴 동료들

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인턴들과 함께한 시간 또한 즐거웠습니다.

제네바에는 국제기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
레만 호수의 '유엔 비치[UN Beach]'가 있는데,
친해진 인턴 동료들과 퇴근 후 호숫가에서 수영하기도 했습니다.

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던 따뜻한 분위기는
제네바 생활 중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



다양한 국적의 동료들!

WTO 비롯한 국제기구 인턴십을 꿈꾸는 분들에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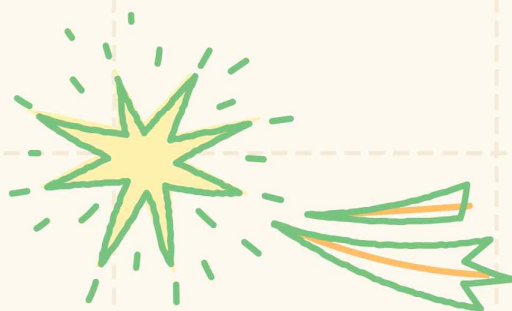
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‘차별화된 전문성’입니다.

WTO의 수많은 부서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일하는 곳입니다.
환경, 디지털 무역, 국제법 등 관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보세요.

“내가 이 기구에 필요한지, 나의 학업적·실무적 배경이
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”를 정립해 둔다면,
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

세계무역기구(WTO) 제네바 본부



**WTO 진출을 위한
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
응원합니다!**



산업통상부